

울산 성평등 정책에 말한다



성평등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차이를 좁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성평등을 남성과 여성의 대립적 관계로 보고 있어 성평등이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것이고 양성이 시너지를 가질 때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는 내용의 다양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백운찬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부위원장)



근본적으로는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이나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별 불균형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미란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출산 사회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성평등 정책의 실현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이미영 (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새로운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존 정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젠더폭력 피해지원 사업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상담의 어려움, 보호시설 폐쇄, 코로나 검사비용 부담 등으로 피해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이 미비했습니다. 시행정책들이 보다 유연하게 보다 실효성있게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강정희 (울산여성회 대표)



여성의 고용과 저출산, 돌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현행법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권리라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누구인가 알고 있는 육아휴직제도는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임에도 그것을 혜택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여전히 남성의 육아휴직은 여성의 육아휴직보다 더 활용하기 힘든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배미란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도로를 닦고 다리를 만드는 등의 시설 기반 정책보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정책에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도시도 없는 것입니다.

염점향 (울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이 개원 5주년을 맞아 '성평등 포용도시 울산 실현'을 새로운 비전으로 수립했습니다. 성평등 포용도시 울산을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영 (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무엇보다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들이 일하고 자기개발을 할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울산에 머물게 될 것이고 자녀를 키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혼여부를 떠나서 모든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통해서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하고 일을 할 때 울산시의 구성원으로써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분야에 여성의 일자리가 창출하는데 시의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옥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2030세대가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강정희 (울산여성회 대표)



돌봄이 여성의 전유 역할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돌봄정책과 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돌봄을 특정 성의 전유 역할로 인식해 왔고 현재에 와서도 그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복리는 돌봄정책과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일자리, 안전, 성인지, 출산정책 등 여성과 관계된 다학제적 정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백운찬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부위원장)

울산광역시 지역 성평등 지수

지역 성평등지수란?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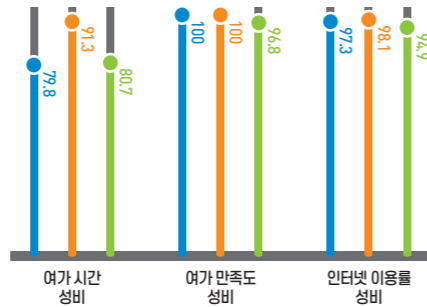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는 2018년 최초로 성평등 중상위지역으로 진입하였으며 성평등 수준 개선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영역별로는 의식·문화영역과 여성의 인권·복지영역에서의 순위상승이 있음

* 출처 : 2019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여성가족부)

등급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성평등 상위지역	광주	강원	대구	광주	광주	대구
	대전	대전	대전	대구	대구	대전
	서울	부산	부산	대전	대전	부산
성평등 중상위지역	전북	서울	서울	전북	제주	제주
	강원	경기	강원	강원	부산	경기
	경기	광주	광주	부산	서울	서울
성평등 중하위지역	대구	대구	전북	서울	인천	울산
	부산	충북	제주	제주	전북	충북
	경남	경남	경기	경기	강원	강원
성평등 하위지역	인천	인천	경남	경남	경남	광주
	제주	전북	인천	인천	울산	인천
	충북	제주	충북	전남	충북	전북
성평등 최하위지역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기	경남
	울산	울산	울산	울산	경북	경북
	전남	전남	전남	충남	전남	전남
	충남	충남	충남	충북	충남	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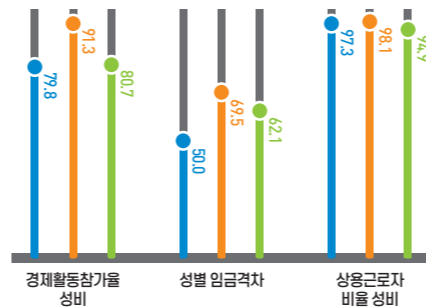
문화·정보 분야

-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여가 시간 성비' 지표는 1위 점수보다는 11.5p나 낮지만 '여가 만족도 성비' 지표는 100.0으로 해당 지표 1위 점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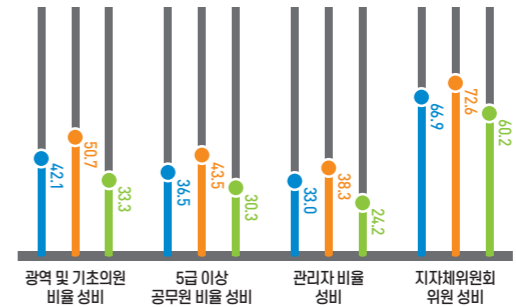
경제활동 분야

-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성별임금격차'에서 1위 점수, 지역평균 점수와 다소 큰 차이를 보이며,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또한 1위 점수보다 11.5p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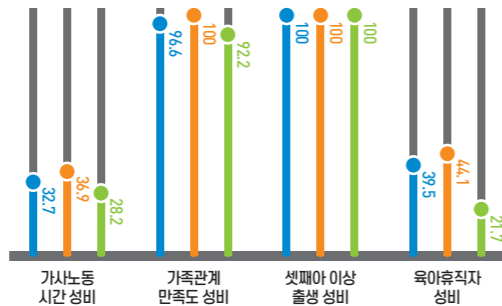
의사결정 분야

-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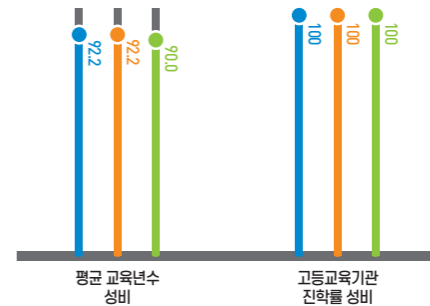
가족 분야

-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가사노동 시간 성비'는 전국 평균보다 4.5p 높고 '가족관계만족도 성비' 지표는 96.6으로 전국 평균 점수보다 4.4p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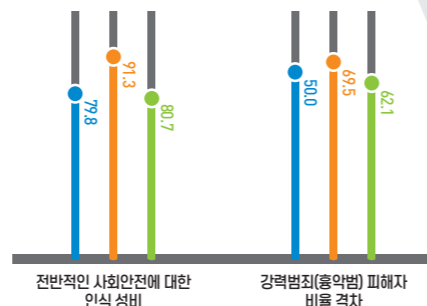
교육·직업 훈련 분야

-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성평등 지수는 해당 분야 1위 지역 점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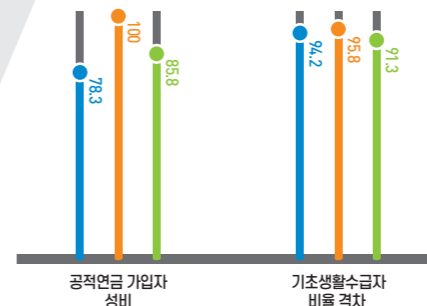
안전 분야

-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지표에서 1위 점수보다 14.9p 낮음



복지 분야

- 복지 분야의 성평등 지수는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성비' 지표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7.5p 낮고 해당 지표 1위 점수보다는 무려 21.7p나 낮음



보건 분야

- 보건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건강 관련 삶의 질 (EQ-5D) 성비'는 98.2로 1위 점수에 해당하며,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는 90.0으로 1위 점수보다는 10.0p 낮은 수준임

